

아름다운 마무리



이정규
캘거리 교민
교육학자/시인

아름다운 마무리는

나와 우리의 삶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 그 길 외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자각하고

그 길이 나를 인도하여 주었음에 가슴으로 감사한다.

자신에게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지난 일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나가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알 수 없는 일들

이 모든 것을 아무 미련 없이 놓아 버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나에게 삼세의 기회를 준

부모님에 대해

가족에 대해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절대자에 대해

마음으로

가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다.

〈밝힘〉 법정(2008). 아름다운 마무리.

서울: 문화의 숲)에서 참조 인용하여 엮은이(이정규)가
가필 편집하였다.

<종교컬럼>

이경민 목사
캘거리제일감리교회 담임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자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이 '예흐웨 아셰르 예흐웨임, '아셰르'가 who로 관계대명사, '예흐웨'가 나는 있다는 의미)

하나님의 이름 YHWH(아웨)의 히브리어 표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함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금방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Jehovah'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단 종파인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이 생각

남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 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의 질문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능력을 가진 신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이름은 능력과 존재를 표현하기 때문이고 또 수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이냐고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I am who I am'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나는 누가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있게하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YHWH를 번역한 것이고 그 말은 위에서 말씀하신 '나는

그런데 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해석하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 합니다. 이 '예흐웨'가 히브리어 문법으로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로 해석이 가능한데, 'I'm who I'm은 현재로 해석하는 것이지만, 히브리어의 어감을 살리는 번역은 'I will be what I will be'입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통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과거에 내가 한 일을 보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의 출처는 팟캐스트 비블리아 (podbbang.com)의 42화 내용 중 후반부에 나온 내용이며, 독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중세 유대 랍비의 해석이라고 소개 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상상을 넘어 계신 분으로,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그 터전이 되기를 바라고, 각자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만들지 마라!



원수를 만들지 마라.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을 심는 것이고

선을 버려 두고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명심보감